오시는 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

기차

대전역(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 B2(BRT) 이용 →
정부세종청사남측 정류장 하차 → 도보 1.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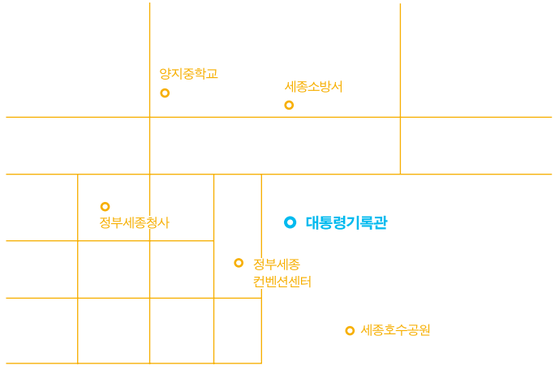
조치원역(30분 소요)
버스터미널 → 버스 550, 601, 602 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 도보 1.5km

오송역(20분 소요)
B2(BRT) 또는 버스 751 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 도보 1.5km

세종시 B2(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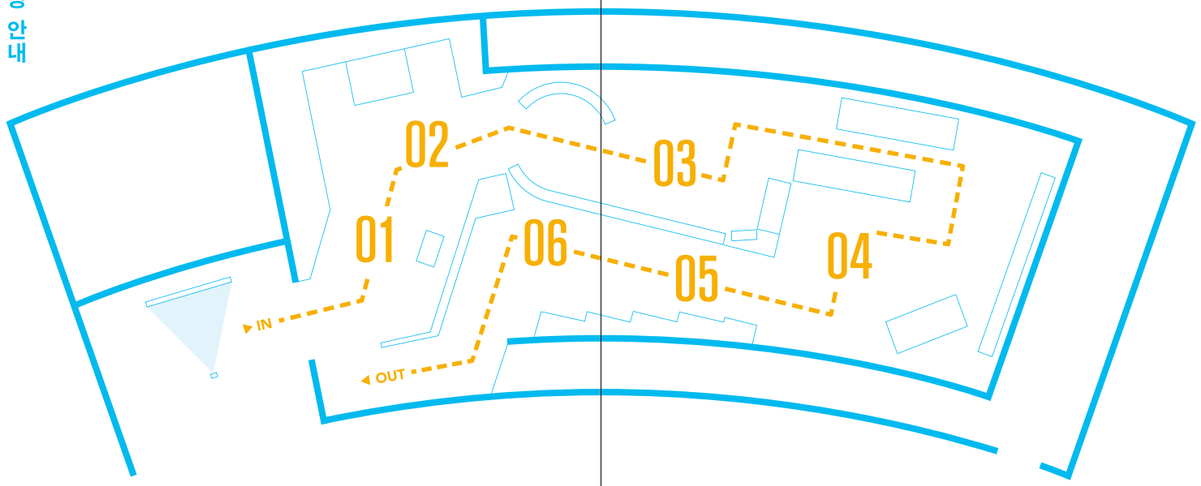
버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070-4904-3263
남측환승터미널 정류장에서 B0, B2(BRT) 승차 →
정부세종청사남측 정류장 하차 → 도보 1.5km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장 안내



전시를 열며

0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들

02 승리하고 돌아가리라

03 가자, 조국으로!

04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하다

05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

06 백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년의 꿈을 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으로 표출된 한국 독립 정신의 결집체였다. 연인원 2백만 명 이상의 한민족韓民族이 참가한 3·1운동은 한국근현대사의 분기점이었다. 이로써 '민民'이 독립운동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왕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국민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을 헌법과 공화주의 바탕 위에 세웠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는 독립 정신과 민족적 염원이 담겨 있었고, 그 지속과 역사에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축이 되었다. 안으로는 정부와 의회, 군대 조직에서 좌우 통합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외 독립운동 조직과 연합·연대를 이끌어냈다. 밖으로는 연합군과 손잡고 항일전쟁에 참가하면서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일본이 패망하자 대일항전의 최전선에서 투쟁했던 임시정부는 조국으로 돌아왔다. 비록 임시정부는 국제적 제약 때문에 연합국 구성원으로 승인받지 못했으나, 국민은 임시정부의 귀국을 고대했으며 마침내 이들을 뜨겁게 환영했다.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RETUR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202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순회전시

還國

2022. 11. 23. – 2023. 06. 30.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0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들

1919년 대한민국 원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수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으로 수립되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정세 변화에 따라 수반 체제를 개편해 나갔다. 대통령제와 국무령제를 거쳐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도입하였고, 1940년 대한민국 22년에는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를 채택해 전시체제에 대응하였다. 1944년 대한민국 26년에는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구 주석·김규식 부주석 체제 아래 광복을 맞이하였다.

• 국무총리제 1919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 대한민국 원년.4.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 국무위원제
1927 대한민국 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포고문
1935 대한민국 17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무령제
1925 대한민국 7년

〈국무령 이상룡 취임식 거행〉 《독립신문》 호외
1925 대한민국 7년.9.25.

• 대통령제
1919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독립신문》
1921 대한민국 3년.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석제
1940 대한민국 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선서
1944 대한민국 26년.4.26.
국회도서관

02 승리하고 돌아가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43년 대한민국 25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을 명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연합국과 함께 대일전에 참가해 광복의 그날까지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 싸웠다.

• 독립을 보장 받기 위한 외교전략

대일선전성명서
1941 대한민국 23년.12.10.
독립기념관

• 광복을 맞이한 임시정부 사람들

•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한 군사작전

한국광복군 국내정진대
1945 대한민국 27년.8.28. | 독립기념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일본 육군참모총장
1945 대한민국 28년.9.2.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03 가자, 조국으로!

1945년 대한민국 27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을 발표하며 환국을 공식화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귀국을 위해 중국·미국 정부와 다각도로 협의한 끝에 이듬해 11월과 12월 1, 2진으로 나뉘어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환국 길에 오르기 전 임시정부는 중국에 외교 기관인 주화대표단을 남겨 중국 내 한국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 및 한국광복군의 확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환국을 천명하다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1945 대한민국 27년.9.3.

• 쉽지 않은 환국의 길

김구 주석과 중국 국민당 우테청 비서장의 회담기록
1945 대한민국 27년.8.22.
독립기념관

• 동포를 위해 남은 사람들
주화대표단

• 환국을 준비하는 임시정부 사람들

김붕준의 트렁크와 양복
1940년대 | 김임용

주화대표단 난징 이전 기념사진
1946 대한민국 28년.4. | 경기도박물관

04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하다

광복 직후 국내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환국을 촉구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자 국민들은 12월 1일 '환국봉영회'에 이어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를 열어 돌아온 이들을 뜨겁게 맞아주었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 행사는 계속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봉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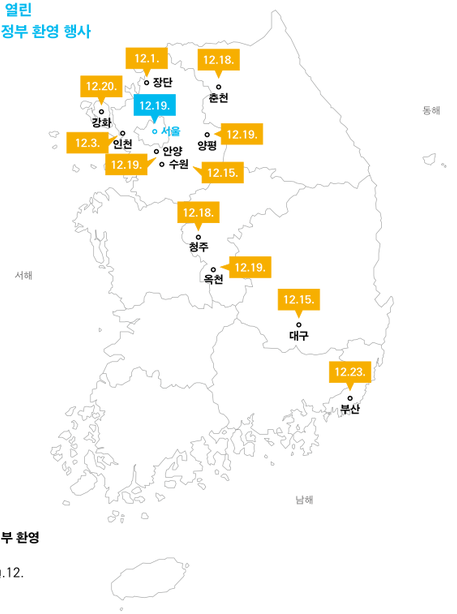
〈환영 임시정부 주석 일행 환국〉 《조선일보》
1945 대한민국 27년.11.25.

•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전국환영대회

화신백화점 앞 개선문을 지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 행렬
1945 대한민국 27년.12.19.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는 사람들
1945 대한민국 27년.12.19.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 전국 각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 행사



전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 행사 지도
1945 대한민국 27년.12.

05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제도와 상징들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헌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적 유산만이 아니라 국호·연호, 국기, 국가, 국경일과 기념일, 정부의 주요 인물들까지 실질적으로 이어받았다.

• 헌법정신을 이어가다
• 정부와 사람이 이어가다
• 국경일과 기념일을 이어가다
• 국가의 상징을 이어가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통령 및 내각 포스터
1948 대한민국 30년.7.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중·영문 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1945 대한민국 27년.11.12.

광복군 서명 태극기
1945 대한민국 27년.2. | 독립기념관

06 백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년의 꿈을 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광복 직후부터 임시정부 요인 및 애국선열 묘역을 마련했으며,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관들을 세웠다. 또한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발굴하여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그 정신과 노력을 모아 2022년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하였다.

• 임시정부를 기념하다

1993 국립서울현충원 임정요인 묘역

1993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202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